아시아 최고인재 골라 親韓 법률가 키워내죠

'무료 로스쿨' 국제법률대학원 유병화 총장

"학비는 물론 기숙사비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아 지역 최고 인재를 모으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지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위치한 국제법률경영대학원은 유병화 총장(59·건 고려대 법대 교수)이 3년 전 사재 10억원을 털어 세운 무료 로스쿨이다.

이곳은 군사보호구역과 맞물려 있을 만큼 한적하지만 각국 최고 대학교에 해당하는 베이징대 하노이대 라오스대 양곤대 등 최고 법과대학에서 온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다.

베이징대를 졸업한 후 베이징시내 로펌에서 파트너 지위에까지 오른 학생도 있다. 이곳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란란 씨(25)는 "아시아 국가 사이에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열기가 뜨거운데 무료로 전공까지 살릴 수 있어 정말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6월 처음으로 배출한 석사 졸업생 33명은 각 나라에서 교수 공무원 변호사 등 주도적 위치에서 한국을 알리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유 총장이 학교를 설립한 것은 학장을 끝으로 20여 년 동안 정들었던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직을 떠난 2001년.

3년전 사재10억 털어 설립

"한국의 하버드로 만들 것"

외무고시 수석 합격 후 파리 등지에서 외교관 생활도 했던 유 총장은 유럽의 힘이 국가간 협력에서 나온다고 여겨 아시아 지역 교류협력 증진 방안 중 하나로 국제교육 사업을 생각해냈다.

물론 법학 교수로서 한국에 하버드나 예일에 버금가는 로스쿨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도 한몫 했다.

사재를 털었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던 자금과 행정 문제로 설립시 많은 애를 먹었다.

"더가 군사보호구역과 맞물려 있어 지역 군부대까지 찾아가 대대장에게 학교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던 경험이 눈에 선합니다. 자금 문제는 다행히 독지가에게 도움을 얻었고요. 그래도 그런 노력 끝에 이런 학교를 설립할 수 있어 지금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어린이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영어와 중국어 캠프를 열거나 몇몇 기업 후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저는 후원자들과 이 학교 사이에 조정역을 할 뿐입니다.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고맙죠. 학교 미래는 밝습니다. 올해도 267명이 지원해 50명의 우수한 인재를 뽑았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버드를 따라잡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박유연기자

'동티모르 히딩크' 된 김신환감독

국민영웅 대접에 대통령 훈장도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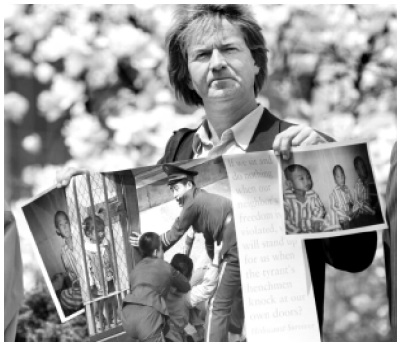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팀을 이끌고 사상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해 '히로시마 기적'을 일궈낸 김신환 감독(47)이 동티모르 국민영웅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단이 지난달 28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32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국제축구대회에서 당당히 우승한 뒤 지난 3일 귀국하자 TV방송과 신문 등 언론매체 기자들이 김 감독을 에워싼 채 우승비결을 취재해 기사화하는 등 본격적인 '영웅 만들기'에 나섰다.

선수단은 픽업트럭과 버스에 분승해 경찰 선도차량을 따라 공항에서 딜리 시내까지 5㎞ 구간에 걸쳐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사나나 구스마오 대통령도 5일 오전 김 감독을 집무실로 초청해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했고, 류진규 딜리 주재 한국대사에게도 감사장을 전달하는 등 한국민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신익수기자



북한 인권개선 촉구 탈북자 지원활동을 펴고 있는 독일인 의사 노르베르트 폴로첸 씨가 7일 세종문화회관 옆 공원에서 열린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표결 촉구결의대회에서 포스터를 들고 있다.

민족사관高 유학반 20명 美명문대 합격

6년연속 전원합격

민족사관고등학교(교장 이돈희)가 6년 연속 유학반 전원 합격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민족사관고등학교는 7일 올해 유학반 학생 20명 전원이 미국 명문대에 입학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버드대 등 총 10개 명문대에서 합격증을 받은 조기 졸업생 박원희양(18)을 비롯해 유학반 학생 전원이 하버드, 예일, MIT 등 미국 명문대에 합격했고 과학고에서 유학교육을 받은 학생까지 MIT에 합격했다.

98년에 처음 개설된 민족사관고내 유학반은 지난해까지 외국 명문대 입학생 42명을 배출한 바 있다.

김은정기자

옛 제도의 우수성

매경춘추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

얼마 전 시중에 화제가 되었던 TV 드라마 대장금은 젊은 여인의 치열한 삶에 대한 열정과 함께 조선시대 궁중음식과 복식제도 등 많은 볼거리로 사람들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극중 대장금이 제수받은 정3품 당상관이 과연 어떤 벼슬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조선시대로 돌아가 보고자 한다.

우선 관료계급은 정1품부터 종9품까지 18품계로 지금(9등급)보다 더 세분돼 있었다.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영의정과 좌·우의정이 정1품, 장·차관은 정2품, 차관보·기획관리실장 등 1급은 정3품으로 여기까지가 당상관이다. 당상관은 붉은 관복을 입고 어전회의에 직접 참여해 주요 국사를 논의했다.

직급이 낮더라도 실권을 가진 자리들도 있었다. 특히 이조정랑은 품계는 정5품으로 중앙부처 과장급이지만 관리들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는 위치여서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하느냐를 두고 알력이 심해 동·서 분당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어사 박문수로 우리에게 친숙한 암행어사도 당하관 중에서 선임되었다. 인연에 얽매이지 않도록 과거에 급제한 지 오래 되지 않은 젊고 강직한 관료 중에서 삼공이 복수로 추천하면 임금이 직접 선택해 임명장과 마패를 수여하고 민정을 살피도록 하였다.

과거에 장원하면 종6품(사무관급)을, 차하위 합격자에게는 정7~9품까지 제수하였다. 1차 시험인 초시는 지역별로 인원을 할당하였고, 본시험인 복시는 실력 위주로 선발하여 능력과 형평을 조화시켰다. 이 밖에도 왕의 전횡을 막기 위한 삼사(사헌부·사간원·홍문관)제도,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휴가제 등 좋은 제도가 많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자생적인 근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일제 강점과 광복 등 격변 과정을 거치면서 옛 제도가 승계 발전되지 못하는 역사의 단절을 겪게 되었다.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도 있지만 구미식 제도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정서나 현실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게 마련인 것이다.

이제 행자부에서는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우리 옛 제도를 연구하고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자 본격 나서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

노용악 LG전자 고문 中후난성 경제고문에

중국 후난성 정부는 최근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노용악 LG전자 중국지주회사 고문(64)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했다.

홍콩 다공바오는 7일 양쩡우 후난성 당서기가 노 고문에게 감사패도 수여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임태진 수출보험公사장 별세

임태진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이 7일 오전 8시 양천구 목동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61세.

유족은 부인 김미덕 씨와 1남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영결식은 9일 오전 8시. (02)760-2091

내달 서울공연 '日가요계 디바' 아무로

"한국팬 만날 생각에 벌써 설레요"

"나를 좋아해주는 팬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죠. 한국 팬들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레요."

일본 대중음악계 최고 여가수로 'J-Pop 여신'으로 불리는 아무로 나미에(27)가 7일 오후 4시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달 있을 내한공연 홍보차 입국한 아무로는 2002년 앨범 홍보물 촬영을 위해 한국을 찾은 바 있으나 공식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내한공연을 하게 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아무로는 "공연장에 몇 명이나 와 줄지 무척 긴장된다"며 "아직은 두 나라 가수들 사이에 성향 차이가 있어 일본 가수 공연이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다방면에서 교류를 계속 하다 보면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아무로는 5월 13~15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세 차례 공연을 한다. 13·14일 공연은 아무로 단독무대로, 15일은 한국 톱가수와 조인트 공연으로 이뤄질 예정.

초창기 댄스 위주였던 음악이 애절한 발라드 위주로 변모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무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다양한 장르에 도전해 노래를 부르려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현기자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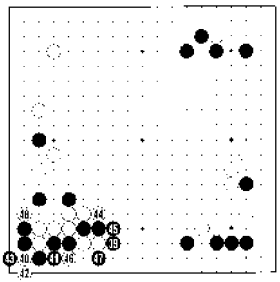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 혁신담당관 徐炳祚 ▲〃 예산담당관 金再睦
■**노동부**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 李秀英 ▲경기지방노동위원장 許元鎬
■**국무조정실** ◇**국장 승진**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정책심의관 辛榮基 ▲기업애로해소센터 사무국장 金孝明 ◇**과장 승진** ▲국무조정실 金昌煥
■**경찰청** 〈**치안감**〉▲경찰종합학교장 李喜慶 ▲경찰청 총무과 魚沛秀 〈**경무관**〉▲대구지방경찰청 차장 朱相龍 ▲강원지방경찰청 차장 李明圭 ▲경찰청 총무과 崔益千
■**우정사업본부**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 李郁茂 ▲〃 기획연구과장 宋官鎬 ▲해운대우체국장 金東赫 ▲구미우체국장 金東哲
■**한국전력공사** ◇**승진** ▲부사장 鄭泰豪
■**한국동서발전** ▲감사실장 劉宗德 ▲경영지원처장 吳漢承 ▲발전처장 金明植 ▲당진화력본부장 朱成哲 ▲울산〃 李福采 ▲호남화력발전처장 李鍾植 ▲임산복합화력〃 全商起 ▲계약관리처 연료팀장 張周鉉 ▲발전처 발전운영팀장 金鍾淳 ▲건설처 사업총괄팀장 金恩基 ▲울산화력본부 제3발전소장 李光鎬
■**KT&G** ◇**2급 승진** ▲해외기획국 해외마케팅부장 姜東洙 ▲재무국 세무부장 李良範 ▲사업개발국 사업2부장 李坤洙 ▲기획조정실 출자관리팀장 姜鐵鎬 ▲홍보실 홍보2팀장 元成喜 ▲경영정보실 정보기술팀장 李準基 ▲감사실 감사1팀장 金容德 〃 감사2팀장 許南得 ▲남서울본부 영등포지점 시장관리부장 羅鍾國 ▲북서울본부 종로지점 시장관리부장 鄭鍾錫 ▲〃 시장개발부장 李興柱 ▲부산본부 울산지점 시장관리부장 高相允 ▲인천본부 총무부장 崔源傑 ▲〃 인천지점장 黃廣洞 ▲경기본부 이천지점장 崔圭山 ▲강원본부 원주지점장 邊元均 ▲경북본부 영업부장 文鳳周 ▲〃 안동지점장 申再雄 ▲영주제조장 제품부장 趙鍾哲 ▲남원원료공장 생산부장 金榮基 ▲인력개발원 경영교육팀장 張雲洙 ▲〃 전문교육팀장 金奉燮
■**금호생명** 〈**팀장**〉▲준법감시 鄭大泳 ▲영업기획 明京鎬 ▲총무 金衡秀 ▲음자 羅炳天 〈**지점장**〉▲대덕 玄鎭英 ▲점단 李明淵 ▲중광주 羅炳俊 ▲효자 朴龍進 ▲강동 金畯鎬 ▲서석 沈敎植 ▲제주 宋榮植 ▲전주 李哲
■**현대증권** ◇**전보** ▲상품운용팀장 이대희 ▲결제업무〃 劉南吉 ▲고객센터장 林鎭澤 ▲시스템운영팀장 李相世 ▲부평지점장 金慶漢 ▲독산〃 金炳鎬 ▲마포〃 李率衡 ▲강릉〃 安洪太 ▲의정부〃 柳漢默 ▲e비즈팀장 曺在炯 ▲감사실장 韓哲均 ▲영등포지점장 朴文光 ▲신림〃 金榮權 ▲동대문〃 宋群鎬 ▲자산관리영업기획팀장 李完圭 ▲업무서비스〃 李吉洙 ▲서광주지점장 吳賢旭 ▲서초〃 韓錫 ▲구포〃 李東潤 ▲온양〃 田炳元 ▲투자전략팀장 吳聖進 ▲IT기획〃 孫皓榮 ▲안동지점장 李憲基
■**현주컴퓨터** ▲부사장 裵弼洙 ▲전무이사 薛秉直 洪性雨 李錫在 ▲상무이사 李東桓
■**제일다이렉트** ▲부사장 황규인
■**레인콤** ▲홍보담당 이사 全種達
■**스타피언** ▲대표이사 具本熙

부음

▲**유정호**(LG전자 남미본부 부장) **석호**(공주대 게임디자인과 교수) **신정**(작가) **기호**씨(예직캡슐 부장) 부친상=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일 오전 9시. (02)3010-2293
▲**許慶九**씨(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배우자상, **南哲**(마이디지털 실장) **南德**씨(재정경제부 서기관·런던 EBRD 파견근무) 모친상=6일 안양시 한림대 성심병원, 발인 9일 오전 6시. (031)380-4145
▲**이주근**씨(인하대 전자공학과 교수) 별세, **정현**(희망병원 외과 과장) **수현**씨(대불대 교수) 부친상, **주승중**(장로회 신학대 교수) **이태영**씨(개인사업) 장인상=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8일 오전 9시. (02)3010-2251
▲**심성보**(대한유화공업 전무이사) **형보**(세일여행사 이사) **순보**(유성구청 관광과학실) **현주**씨(관악여자중보산업고 교사) 부친상, **김용기**씨(KD상역 대표) 장인상=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9일 오전 7시. (02)3410-6914
▲**김학배**씨(ASE코리아 직원) 부친상=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9일 오전 7시 30분. (02)3010-2240
▲**이동우**씨(KBS 라디오1국 PD) 부친상=7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 9일 오전 9시. (02)392-2299
▲**김태훈**(자영업) **태경**(자영업) **태문**(SK증권 영업부 차장) **태미**(가락동 농수산물시장) **태수**씨(자영업) 모친상, **박범상**(자영업) **조봉영**(건축업) **촌상전**씨(무역업) 장모상=6일 충북 영동군 자택, 발인 8일 오전 9시. (043)743-5064
▲**박종성**(재 뉴질랜드) **종완**씨(농림부 직원) 부친상, **윤수일**씨(당진군의원·당진여객 대표) 장인상=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9일 오전 9시. (02)3010-2294
▲**이규세**씨(전 경기도의회 의장) 모친상=7일 김포시 고려병원, 발인 9일 오전 9시. (031)998-1983
▲**金奎永**(신영메디칼 대표) **信永**(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공동행위과 사무관) **奎燦**씨(하든첨강 대표) 모친상=7일 김제시 새만금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9시. (063)545-0033
▲**趙在忠**(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 **在鴻**(삼성생명 고객지원실장) **在卿**씨(해병대 사령부 참모장) 모친상, **李東浙**(전 답배인삼공사 지점장) **南昌基**(협성중학교 부장) **徐相一**씨(전 현대산업개발 부장) 장모상=7일 대구 모례아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9시. (053)813-5961
▲**沈載沃**씨(KBS 편성본부 영상그래픽실 뉴스그래픽팀 차장) 별세=7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 9일 오전 9시. (02)392-2099
▲**박희용**씨(메일경제 구월지국장) 장인상=7일 경기도 양평군 자택, 발인 9일. (031)773-4913
▲**이윤기**(가톨릭의대 교수) **박용혁**(미국 스토니부룩주립대 교수) **이승렬**(대한항공 홍보실 차장) **김명래**씨(개인사업) 장인상=7일 속초의료원, 발인 9일 오전 7시. (033)635-6466
▲**우동균**(경산컨설팅 대표) **태윤**씨(일요신문사 사진부 차장) 부친상=7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 9일 오전 9시. (02)392-0299
▲**정상호**(케이알엑스 대표이사) **길상**(재미) **상선**씨(재미) 부친상, **이희**씨(한국3M 본부장) 장인상=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9일 오전 9시. (02)3010-2238
▲**衰財賢**씨(자영업) 부친상, **金載圭**씨(현대증권 양재지점장) 장인상=6일 대구 곽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 30분. (053)252-1603
▲**유상근**씨(전 강북구청 민원행정과장) 별세, **이경근**씨(노동부 총무과) 장인상=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 (02)3010-2266
▲**박성재**(신한은행 개농역지점 차장) **현주**씨(엔씸솔루션 과장) 모친상=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8일 오전 6시 30분. (02)3010-2291
▲**임동선**(도서출판 늘푸른소나무 대표) **동헌**(소설가) **동준**씨(소설가) 부친상=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 (02)3010-2239

제9기 LG정유杰 프로기전

白 최원용 3단 黑 박영훈 5단



본선 16강전 덤 6집반 <제한시간 4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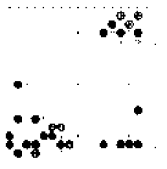
구상이 다른 바꿔치기

5보(39~48)

박영훈 5단은 올해 동갑내기인 최철한 7단, 원성진 5단과 나란히 바둑명문 충암고를 졸업했다. 맞수이자 친구인 이들은 졸업하면서 가는 길이 달라졌다. 최 7단과 원 5단은 외국어대에 들어갔지만 박 5단은 대학생활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농심배 3연승 주인공인 원 5단은 LG배 세계기왕전 4강에서 이창호 9단에게 진 뒤로 기세가 한풀 꺾인 느낌이다. 최 7단테는 화려한 봄날이다. 옛그제 기성전 도전3국에서 이창호 9단을 꺾고 2대1로 앞섰다. 백을 쥐고 이 9단을 이긴 것은 처음. 앞으로 남은 두 판 가운데 한 판을 더 이긴다면 '천왕' '국수'에 이어 3관왕에 오른다.

박 5단은 7분을 넘게 생각한 뒤 흑39로 두점머리를 두드렸다. 이 세돌 9단이 처음으로 이 길을 갈 때는 그냥 45로 늘었다. 45로 느는 것보다 39로 두드리는 것이 한결 힘이 있으며 또 좀더 깊은 연구가 있었을 것이다.



<참고도>

최원용 3단이 8분 가까이 생각하고 둔 백40은 귀를 가지겠다는 뜻. 백46을 희생해 한 수를 번 뒤 48로 젖혀 흑 두 점을 잡았다. 그런데 박 5단은 다른 의견을 냈다. 〈참고도〉 백1 쪽이 나았다고 말한다. 백은 아래쪽을 모두 포기하고 대신 위쪽 귀에서 백7로 축머리를 써서 오른쪽을 키우는 작전을 펴는 것이다. (Ⓐ…13)

<양재호 9단>

고품질 휘발유 SIGMA 6